

“어린이 친구들, 날 보러와요”

침팬지 ‘대원’ 방문객에 환호...‘인기 짝’ 뱀갈호랑이 늑름
펠리컨·홍부리 황새 사는 새장 리모델링...손님맞이 분주

우치동물원 오늘 재개장

동물원 문을 닫게 한 ‘AI 주범’으로 눈
총을 받고 있는 기러기들은 어떤 모습일
까? 최근 남편을 잃은 기린 ‘아린’(아름다
운 기린)이는 어떻게 지낼까?
광주 우치동물원이 고병원성 조류인플
루엔자(AI)을 이겨내고 문을 닫은 지 101
일만인 30일 재개장한다.
29일 찾은 우치동물원은 평온했다. 동물
원에서 제일 덩치 큰 먹보 코끼리 모녀 ‘봉’
과 ‘우리’는 추운 날씨 탓인지 집 밖으로 나
오지 않았다. 이 모녀가 하루에 먹는 식사
량은 200kg이다. 먹보 딸 ‘우리’는 먹보답
게 하수구 물까지 먹어치운다. 밤을 주지
않으면 소리를 ‘뿌우’ 지르며 화를 내는 등
괴팍한 성질을 여전하다. 이를 모녀는 10
kg짜리 사과 3박스는 거뜬히 먹어치운다.
1kg짜리 단호박 30개도 순식간이다.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지만 사납고
무서운 동물은 뱀갈 호랑이다. 인도 호랑
이라고도 불리며 몸무게가 200kg이다. 이
뱀갈호랑이가 지난해 친구들까지 물어죽
이는 등 악행을 일삼자 동물원 측은 혼자
유배보냈다.
동물원 마스크트였던 기린 ‘아린’은 지
난달 남편 ‘마린’을 떠나보내고 사육사를
출로 쓸쓸히 거닐고 있다. 동물원 측은
“예산문제 때문에 당분간은 수컷 기린을
들여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람과 가장 많이 닮은 침팬지 ‘대원’은
여자만 보면 환호한다. 먹을 것을 주지 않
으면 자신의 ‘똥’을 던지는 등 만행을 부리
지만 여자 관람객만 오면 잠잠해진다.
가슴에 커다란 V자 털무늬가 있는 반달
가슴곰은 이제 막 겨울잠에서 깬다. 장장
3개월간 밤도 먹지 않고 잠을 잤다.
다친 동물들도 눈에 띄었다. 4개의 뿔이



재개장을 하루 앞둔 29일 뱀갈호랑이가 사육사 안에 엎드려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하늘로 높이 솟은 ‘수컷 꽃사슴’은 서열다
툼에서 패해 다리를 다쳤다. 이 꽃사슴은
최근 서열 2위의 설움을 끝장내려 쿠데타
를 일으켰다. 무리의 모든 암사슴을 거느
리는 특권도 욕심이 났다. 하지만, 역부족
이었다. 쿠데타는 실패했고, 왼쪽다리에
부상만 입고 말았다.
주로 나무 위에서 살며 밤을 좋아하는
‘다람쥐원숭이’는 며칠 전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꼬리에 동상이 걸려 꼬리를 잘
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순한 ‘양’은 원인 모를 부상으로 다리에
갑스를 하고 있으며, 암컷 ‘퓨마’는 원눈에
다래끼가 나 빨간 눈으로 개장을 기다리

고 있다. 펠리컨, 홍부리황새, 관머리두리
미, 캐나다기러기 등이 함께 살고 있는 큰
물 새장은 손님맞이를 위해 공사 중이다.
우치동물원에는 뱀갈호랑이·침팬지·
불곰·수리부엉이·가비알악어 등 총 134
종 730마리의 동물들이 어린이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다.
성장된 우치동물원 진료담당은 “AI 여
파로 100일간 임시휴장하는 바람에 아이
들에게 동물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지 못
해 너무 안타까웠다”며 “꽃피는 봄날 동
물원 문을 다시 여는 만큼 많이들 찾아달
라”고 당부했다.

/글·사진=전문기자 ej6621@

이번엔 장흥...또 오리농장 AI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빈발했던 장
흥의 다슬 계열 농장에서 또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지난 15일부터 무려 7건이 다슬
계열 농장에서만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흥군
용산면 다슬 계열 육용 오리 농장에서 출
하 전 검사 중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에서 키우는 오리 2
만2000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이다. 장흥에
서는 지난 15일 부산면의 인접한 오리 농
장 3곳, 22일 용산면 1곳 등 4개 다슬 계열
농장에서 AI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번에 발생한 농장은 지난 22일 발생지
와 3.3km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슬 계
열 농장 일제 검사가 진행된 지난 21일 검
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남에서
는 고병원성 확진 전인 이번 농장을 제외
하고 지난해 11월 이후 모두 35건의 AI가
발생했다. 발생 농장 가운데 16곳은 다슬
계열이었다.
/윤현석기자chadol@



조선대 대자협 공익이사 선임 촉구 삭발

조선대 교수·직원·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대학자치운영협의회는 29일 오전
조선대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익이사 선임을 촉구했다. 이봉주 교
수평의회장이 이사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울 전문대 U턴족 ‘역대 최고’

광주·전남 242명...보건계 선호

전남대 농대를 졸업한 이모(27)씨는 2년
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올해 초 동강
대 스마트무인항공과에 재입학했다. 평소
흥미를 갖고 있던 드론 관련 산업에 늦기
전에 진출하기 위해서다.
목포대 법학과를 나와 간호조무사로 일

하던 신모(38)씨도 올 해 초 동강대 간호학
과에 입학했다. 이른 바 ‘유타(u-turn)족
(族)’인 셈이다. 신씨는 취업에 도움이 안
되는 4년제 학사 학위를 따기보다는 실속
을 챙기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전문대 문
을 두드렸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발표
한 ‘2017학년도 전문대학 입시결과’에 따

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에 재
입학한 ‘유타 입학생’은 145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대 유타입학생’은 ▲2012년 1102명
▲2013년 1253명 ▲2014년 1283명 ▲2015
년 1379명 ▲2016년 1395명 ▲2017년
1453명 등으로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유타 입학생들의 선호 학과는 간호계열에
604명(42%)이 입학, 1순위로 뽑혔고 보건
226명(16%), 응용예술 101명(7%), 경영·경
제 58명(4%), 복지 58명(4%) 순이었다.

취업에 도움 안 되는 4년제 학사 학위보
다는 실속을 챙기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광주에서도 올 해 136명이, 전남에서는
106명이 4년제를 다니거나 졸업한 뒤 전
문대로 다시 입학한 ‘유타 입학생’으로 나
타났다. 조선이공대학은 생명환경화공과
에만 25명이 불리는 등 36명의 ‘유타족’이
몰려 광주·전남 전문대 중 가장 많았다.
조선간호대 간호학과(33명), 기독간호대
간호과(19명) 등 보건계열도 선호 학과로
꼽혔다.
/김지율기자 dok2000@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2
해질녘 18:52
달돋이 07:53
달질 21:17

반가운 햇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은 뒤 흐림	6/20	보성	맑은 뒤 흐림	4/19
목포	맑은 뒤 흐림	5/15	순천	맑은 뒤 흐림	6/19
여수	맑은 뒤 흐림	8/18	영광	맑은 뒤 흐림	2/15
나주	맑은 뒤 흐림	3/19	진도	맑은 뒤 흐림	7/13
완도	맑은 뒤 흐림	7/18	전주	맑은 뒤 흐림	4/18
구례	맑은 뒤 흐림	3/19	군산	맑은 뒤 흐림	2/16
강진	맑은 뒤 흐림	5/20	남원	맑은 뒤 흐림	3/19
해남	맑은 뒤 흐림	3/17	흑산도	맑은 뒤 흐림	5/11
장성	맑은 뒤 흐림	3/18			

◇바다 날씨

서해	남해	남해	남해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남해	남해	남해	남해	북~북동	0.5~1.0	북서~북	0.5~1.0
남해	남해	남해	남해	북~북동	0.5~1.5	북서~북	1.0~1.5
남해	남해	남해	남해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해	남해	남해	남해	북서~북	1.0~1.5	북서~북	0.5~1.5
남해	남해	남해	남해	북서~북	0.5~1.5	북서~북	1.0~1.5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낮음

◇주간 날씨

31(금)	4/1(토)	2(일)	3(월)	4(화)	5(수)	6(목)
6/14	6/14	3/15	4/18	4/20	7/19	8/19

전국에 ‘제2의 정유라’ 수두룩

체육특기생 학사관리 실태조사...무시험·불출석 학점 인정

조선대를 비롯, 체육특기생이 100명
이상인 전국 17개 대학이 수업에 참여하
지 않거나 시험을 치르지 않은 체육특기
생들에 출석을 인정해주고 학점을 주는
등 허술하게 학사 관리를 해 온 것으로
교육부 조사결과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까지 조선대·한국체대·용인대·연세대
등 전국 17개 학교의 학사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당하게 학점을 취득한
체육특기자를 포함, 시험·과제물을 대
신해 응시하거나 제출한 학생, 학사관리
를 허술하게 해온 교수·강사 등을 확인
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고려대·연세대·한양
대·성균관대의 경우 1996년 이후 입학
한 체육특기생 가운데 학사경고 3회
이상 누적됐음에도 제적하도록 규정한
학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별로는 고려대가 236명, 연세대가
123명, 한양대가 27명, 성균관대가 8명
이다.
교육부는 또 ▲재학 중 프로그램에 입
단해 학교 수업과 시험 참여가 어려운데
도 출석과 성적이 인정된 경우(9개 대학,
학생 57명, 교수 370명) ▲시험·과제물
대리 응시(5개 대학, 교수 5명, 학생 8명)
▲장기 입원, 재합치료로 수업에 불참했
지만 출석·학점 인정(6개 대학, 학생 25
명, 교수 98명) ▲출석 일수 미달에도 학
점 부여(13개 대학, 학생 417명, 교수 52
명) 등의 부실한 학사 관리 사례를 파악
했다고 밝혔다.
이양은 이날 학교와 학원 수업을 마치
고 밤 9시에 야간자율학습을 하러 학교
에 간다며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아
범죄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영광 야자 간 여고생 13일째 행방불명

집을 나간 여고생이 13일째 행방불명
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영광경찰청은 지난 17일 밤 9시30분께
영광군 영광읍에서 고등학교 1학년 이
모(15)양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겨 수
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양은 이날 학교와 학원 수업을 마치
고 밤 9시에 야간자율학습을 하러 학교
에 간다며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아
범죄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이 제품은 의뢰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주 및 동남권) 0621-430-8900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에도 대한보청기가 필요합니다

TV·전화·말소리가 잘 들립니다!!

대한보청기

1+1 무료!!

구입 시
전 제품해당

특별이벤트
무료!! 배터리 5년간 무료!!
A/S 특별 5년간 무료!!
(보청기 구입 1+1 무료, 모두 적용)

맞춤렌탈 (표준 가입비 면제) **보조금 (최대 131만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무료방문 홈 서비스!!** ※ 청각장애등급 해당자

50% 특별대할인

광주·전남 본점 **0621430-8900**
순천·여수 본점 **0611741-4880**
전북·전주 본점 **0631251-4999**

대한보청기
DAEHAH HEARING AID
www.maxo.co.kr

◆장안본사 02)2248-5600 ◆중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